

#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잔혹성 이미지

-크리스테바 이론을 중심으로-

윤 영\* · 양 숙 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졸업\*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Cruel Images Shown in Modern Fashion

- Focused on Julia Kristeva's Theories -

Young Yun\* · Sook-Hi Ya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3. 10. 10 투고)

### ABSTRACT

Upon the threshold of late 20th century, the social, cultural and artistic trend began to pursue aesthetic pluralism and deconstructivism, and thus, fashion also began to reflect such a trend only to express cruel, detestable, horrible and ugly aesthetics.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focused on the cruel images appearing in the modern fashion and thereby, attempted to determine their causes in reference to Julia Kristeva's theories. Her theories of women explain that women have incessant desires or blind obsessions about penis due to the bisexual instinct inherent in their subconsciousness, and thereby, discuss sado-masochism, a characteristic of women's violence and cruelty. In addition, she determines of abject, detestable and horrible nature of women by explaining their struggle to be separated from mothers at the stage of Oedipus (sexual differences).

Based on such theories about women's cruelty, the cruel images shown in the modern fashion are categorized into sado-masochism, the violent and destructive image, and abjection, the women's apparels made of unpleasant, terrible and creepy materials decorated, to be reviewed systematically.

Key words: Julia Kristeva(잔혹성, 줄리아 크리스테바), Sado-masochism(사도-마조키즘), abjection(애브젝션)

## I. 서론

현대 사회의 미(美)의 개념은 과거 이분법적이고 획일화 된 미(美)적 가치 기준의 와해와 다원주의 현상으로 보다 다양하고 폭 넓게 확대되어, 정상적이고 평범한 것뿐만이 아닌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혐오스러운 것 또한 미(美)의 한 범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잔혹성의 표현은 현대 사회의 인간성 상실과 세기말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심으로 인해 오늘날 더욱 활발하게 문학, 회화, 조각, 사진, 패션 등의 예술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영화, 광고와 같은 대중 매체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표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패션이란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조형 예술로써, 20세기 포스트 모던의 영향으로 인한 문화적 다원주의, 질충주의, 해체주의, 그리고 하위문화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잔혹한 이미지를 과감하게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여성 패션에 있어서의 잔혹성의 표현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여성의 성적 위치와 사회내의 존재가치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더욱 상징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여성의 패션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잔혹성을 살펴보는 것을 현대 사회의 여성의 성적, 사회적 존재가치와 잔혹성에 대한 인식과 미적 가치를 살펴보기에 가장 적합하고 용이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잔혹함에 관한 여러 이론 가운데 정신 분석학자이자 기호학자인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인간의 잔혹함에 대해서 여성이라는 성적 존재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여성의 잔혹하고 혐오스러운 것에 대한 탐닉과 욕구는 여성이라는 성적 존재가 여성 자신을 스스로 잔혹하고 혐오스런 존재로 치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여성의 맹목적인 남근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발생하는 사도-마조키즘(Sado-Masochism)적인 현상과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브젝션(Abjection)을 통해 이와 같은 이론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잔혹성의 개념과 특성을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영향을 동시에 수용하여 표현해내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신체를 통하여 표현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잔혹성의 특성

을 크리스테바의 여성에 관한 잔혹성이론과 접목시켜, 오늘날 패션에 나타난 잔혹한 이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여성의 성적, 사회적 존재가치와 잔혹성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의의와 미학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의 잔혹성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둘째, 크리스테바의 잔혹성에 관한 이론과 표현 양상을 살펴본다. 셋째, 크리스테바의 이론에 따른 잔혹성의 이미지가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고찰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와 내용분석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미학관련 서적과 학술 논문, 학술 잡지, 패션 잡지 등을 참고하여 현대 사회 안에서의 잔혹성에 대한 예술적 의의와 미적 가치를 신체를 통해 나타난 다양한 이미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크리스테바의 잔혹성 이론과 접목시켜, 이를 중심으로 패션에 표현된 잔혹성 이미지를 사도-마조키즘과 애브젝션으로 범주화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II. 잔혹성의 일반적 고찰

### 1. 잔혹성

#### 1) 잔혹성의 개념

잔혹성이란 사전적 의미로써 성질이나 태도가 지독하게 잔인하거나 참혹한 상황을 뜻한다<sup>1)</sup>. 이런 잔혹성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영어로 레베카 아놀드(Rebecca Arnold)는 그의 저서 『Fashion, Desire, and Anxiety』에서 brutal(잔혹한)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여기에서의 brutal이란 cruel(잔인한), violent(폭력적인), severe(가혹한), harsh(무자비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brutal의 의미를 ‘야수와 같은 불쾌한 부분을 숨기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는 몹시 가혹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콜린즈 사전에서는 brutal이란 ‘타락하고 야만적이며 극도로 가혹하고 매정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잔혹성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술에서 잔혹한 의미로 행해지고 있는 그로테스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로테스크란 극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며 풍자나 비유

를 통한 우스꽝스러운 표현이 포함된다<sup>2)</sup>는 점에서 잔혹성과 구분되어진다.

예술을 통해 표현되는 잔혹성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끔찍함이나 잔인함뿐만이 아닌 모든 예술이 궁극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조건, 그리고 예술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론적 도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일반적인 잔혹성의 이미지인 폭력이나 분노담의 이미지뿐만이 아닌, 예술을 발생시키는 인간과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표현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잔혹성의 표현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보다 직접적이고 과격한 형태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현대 사회의 인간성 상실에 따른 정신적 위기와도 관련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잔혹성의 특징

예술은 도구를 통하여 사고를 표현하며 그 도구로써 언어, 사물, 공간, 신체 등이 사용된다. 최근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영향은 시각예술 분야에서 신체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주목하고 있다. 신체란 비언어적 요소 중에서 특히 시각 정보들을 메시지 전달의 주요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독특한 기호체계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표출하는 대상이다<sup>3)</sup>. 또한 신체는 개인의 자아 정체성과 각 시대와 문화가 요구하는 담론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그것이 요구하는 양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해내는 도구이다. 신체는 이제 더 이상 시각적 눈요기나 성적 즐거움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고도로 치열해진 이념적 논쟁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잔혹성의 표현 역시 신체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사진이나 행위예술, 그리고 대중문화의 영화나 광고와 같은 시각예술 전반에서 잔혹함의 표현은 신체를 통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다원화 된 미적 가치와 추의 미학의 대중화에 힘입어 나타난 현상이자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성 상실로 인한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신체를 통해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본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잔혹성의 특징을 신체

를 통하여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 첫째 물리적 힘을 통한 신체의 파괴, 둘째 본래의 모습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신체 변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체로부터 발생하는 더럽고 혐오스런 배설물로 분류하여 그 특징들을 고찰하였다.

### (1) 파괴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는 에로스에 반하여 파괴와 죽음을 향하려는 욕망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파괴적 본능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욕망이라고 설명하였다. 파괴는 일반적으로 폭력을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폭력이란 단순한 물리적, 제도적, 정치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모든 주어진 것을 무력화시키고 파괴의 한계까지도 파괴하는 무한한 폭력을 뜻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파괴의 대상이 없는 순수한 힘으로서의 폭력이며 타자를 지향하는 무한한 충동이다. 이것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고 허무를 하나의 힘으로서 드러내며 파괴를 이루어 낸다. 이러한 파괴는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모든 형태와 존재성을 인정하며, 표면에 드러난 것을 해체하고 파괴시킴으로써 내재된 존재가치를 재포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파괴의 이미지는 신체를 통해 훌륭하게 표현될 수 있다. 신체의 파괴는 시각 예술 전 분야에 걸쳐서 표현되고 있는데, 특히 사진이나 신체 행위예술, 그리고 영화나 광고와 같은 효과적인 시각예술에 있어서 더욱 활발히 나타난다.

<사진 1>은 폭력으로 인해 파괴된 신체를 상처와 피로써 그대로 표현한 사진 작품이다. 이것은 신체 예술가인 프랑코(Franko B)의 작품으로서 그는 신체의 파괴와 해체를 작품의 주된 모티브로 삼으며 이것을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로 표현한다. 그는 상처, 피, 고통 등은 삶에 있어서 죽음과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강한 욕망과 그것의 소실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사진 2>와 <사진 3>은 신체를 고리로 뚫어 줄과 낙하산용 가죽으로 연결하여 공중에 매달고 있는 행위예술이다. 이것은 행위예술가인 스텔락(Stelarc)의 퍼포먼스로서 그는 신체의 파괴를 통해 오늘날의 신체가 의미하는 바를 표현하고 있다. 그는 신체를



<사진 1> 신체파괴, Gavin Mitchel, 1999.

<사진 2> 『Street Suspension』, Stelarc, 1994.



<사진 3> 『Sitting/Swaying for Rock Suspension』, Stelarc, 1996.

쑤시고 찌르는 것이 신체를 확장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신체 파괴가 단지 형태를 파괴하는 행동이 아닌 신체의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sup>5)</sup>.

이와 같이 신체의 파괴는 신체의 범주를 보다 확장시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아름다움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표현방법이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받아들이는 것의 경계를 넓게 확장시키고자 하는 바람에서 행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 변형**

신체를 왜곡하고 변형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체에 관해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은 변화시키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금기시 되었던 신체적 일탈을 통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동시에 쾌감을 느끼고자 행해지는 것이다.

오늘날 자연 그대로의 신체 자체는 과학기술과 인공장치, 성형 수술, 유전자 조작과 복제, 그리고 가상 실제 등

으로부터 침범 당하고 있다. 그러한 문화적 변화들은 어떠한 요인들보다도 더욱 명백하게 신체에 관한 육체적이고 개념적인 경계를 미래의 신체 탐험으로 변이 시키게 만들었다. 이러한 요인들로부터 발생하는 신체 변이는 몸을 통한 행위예술 작업들에서 신체에 대한 변화된 개념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sup>6)</sup>.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체의 침범은 스텔락의 신체 확장을 위한 행위예술 퍼포먼스 세번째 손(Third Hand)에서 나타난다. <사진 4>의 세 번째 손은 기계로 제작된 손으로 이것은 그의 복부와 다리 근육에 의해 조절된다. 그는 이것을 통해 기술에 의해 신체가 어떻게 침범 당하는지, 그리고 신체가 기술과 어떻게 집목되는 것인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사진 4> 『The Third Hand』, Stelarc, 1999.



<사진 5> 『Puppe』, Hans Bellmer, 1956.



<사진 6> 『무제, #264』, Cindy Sherman, 1992.

이와 같은 신체의 왜곡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 보다 활발하게 나타난다. 이는 기존 사회에 팽배해있는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의 소외와 억압으로 인한 것으로서, 여성의 신체 왜곡을 통해 여성이란 열등하고 억압당하는 존재가 아닌 내재된 힘과 가능성을

지난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 <사진 5>는 '인형'이란 제목의 작품으로써 여성 신체의 변형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존재가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 6> 역시 여성의 얼굴에 기괴한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여성의 성적 특징인 가슴과 성기부분을 노출시키면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을 단지 성적인 용도로만 여기는 사회내의 의식을 페미니즘적 표현으로 비유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성적인 부분의 표현에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신체의 과장된 표현은 성기부분의 강조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특징과 사회적인 성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노골적인 성의 이미지들을 작품화하여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동시에 남성 중심주의의 사회와 남성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자 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신체 변형은 신체 일부분을 확대하거나 반복하여 나타냄으로써 그 부분을 돋보이게 하고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에 관한 개념과 경계를 전복시키며 또한 신체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을 야기시킨다.

(3) 배설물

오늘날 신체의 내부는 안/밖 경계선의 붕괴과정에 존재하고 있다. 신체는 내장이 내놓는 배설물 앞에 굴복하며 자체의 고유성이 결핍되어 있다. 이러한 결핍된 주체의 상태를 소변, 피, 대변은 확인시켜준다<sup>7)</sup>. 다시 말해 신체에서 배설되는 더러운 오물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도구로서 신체를 가로지르며 오물이나 부패물, 혼합물을 몰아내고 이를 통해 신체를 정결하고 고유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 이와 동시에 배설물과 부패, 감염, 질병, 시체 등과 같은 신체의 잔여물들은 외부로부터 온 위협을 표상한다. 즉 이는 비자야로부터 위협당하는 자아, 외부환경으로부터 위협받는 사회,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위협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배설물과 시체와 같은 쓰레기들이야말로 끊임없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인간의 생존을 떠받치고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는 것을 설명한다.

이와 같이 신체의 배설물을 소재로 하여 신체를

표현하는 것은 과거 이분법적 구조의 미적 범주를 파괴시키는 일종의 추의 미학으로서,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미적 표현이다. 이것은 신체를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로 여겼던 것에 반하여, 신체를 비천하고 잔혹스런 존재로 재정의 하며 또한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오던 사고와 행동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배설물과 관련하여 분리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물이다. 음식물은 자연상태의 것을 변형시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양가성의 오염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잔여물이 주는 더러움은 동시에 재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음식물은 서로 다른 영역이나 두 층계 사이의 모서리를 이루는 더럽고 비천한 것임과 동시에 존재와 비존재, 죽음과 활기, 이 모든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자연과 문화, 인간계와 비인간계 사이의 경계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사진 7>은 배설물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있다. 이 사진은 배설물을 익숙한 주변 환경에 장식함으로써 이것이 우리 삶의 일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보호되고 생존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상징한다. <사진 8>은 음식물을 통해 오염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음식물은 만들어지기 이전보다 만들어진 후, 먹기 전보다 먹은 후가 더욱 오염되고 더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음식물의 더러움에 대한 설명은 브라만교<sup>8)</sup>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사진 7> 『무제, #175』, Cindy Sherman, 1987.      <사진 8> 『무제, #172』, Cindy Sherman, 1987.

이와 같이 배설물과 음식물이 주는 더러움과 혐오감은 오늘날 사회에서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존재가치를 재정의 하게 하고 신체를 온전하게 존재케 하기 위해 그 이면에 반드시 존재하는 잔혹성과 공

포를 통해 신체의 중요성과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

## 2.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잔혹성

정신분석학자이자 기호학자인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여성 문제에 대해 페미니즘적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사고와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녀는 프로이트가 발견한 모든 신경증의 원인인 유아기때로부터 이어져 온 무의식 안에서의 성적인 본능과 억압에 의한 고통을 이론적 바탕으로 삼으면서, 그것으로부터 여성에 관한 새로운 정신분석 이론과 행동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성인의 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한 오이디푸스 이론을 바탕으로 성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것으로, 오이디푸스 단계에 있어서 욕망의 상징인 남근을 하나의 기표로 삼으며 이러한 성적인 기표와 그것의 대상이 되는 기의 사이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그녀는 이와 같은 이론을 통해 여성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크리스테바는 남근이라는 기표를 라캉(Jacques Lacan)의 욕망이론과 접목시키며,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그녀의 이론은 페미니즘(Feminism)적 관점에서의 여성에 대한 분석의 밑바탕이 된다. 크리스테바는 과거 1970년대와 1980년대 라캉 이론을 근거로 한 페미니즘<sup>9)</sup>을 1990년대 새롭게 대두된 여성의 쾌락과 욕망, 그리고 공격성에 대한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의 이론과 접목시키고 있다.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sup>10)</sup>의 핵심은 주체성을 형성시키는 어머니와의 관계로, 어머니는 원초적 타자로서 유아의 공격대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1970, 1980년대의 탈 구조적이고 기호학적인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우위를 보다 확대시킨 페미니즘의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크리스테바는 1970, 1980년대의 기호학적 페미니즘과 멜라니 클라인의 여성 신체에 대한 이론을 결합시켜 여성의 위치를 남근이라는 상징계보다 앞선 기호계로 상징하고, 기호계에 존재하는 어머니, 즉 모체라는 거대한 근원인 여성 신체를 통해 서구 사회 내의 남성 우월 주의적 사고에 반기를 들고 있다.

즉, 그녀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이론과 라캉이 설명한 욕망의 상징(기표)인 남근을 바탕으로 여성에 관한 새로운 페미니즘적 분석과 인식을 정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존재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 1) 사도-마조키즘

사도-마조키즘이란 사디즘(Sadism)과 마조키즘(Masochism)을 합쳐 지칭한 것으로써 가학피학성 변태 성욕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변태 성욕은 동시에 나타나는 행동양식으로써, 사도-마조키즘은 타인을 지배하고 고통을 준다는 것과 열등감과 무력감으로 자기 상실에 빠져버린 채 타인에게 학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모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모두 불안감과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공통적인 심리현상으로써 상호 공존하게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페티쉬즘(Fetishism)에 포함되는 하나의 변태성욕으로 설명된다.

크리스테바는 이러한 사도-마조키즘을 남근 일원론적 사고에 의해 나타나는 심리적, 육체적 열등의식과 욕망의 상징인 남근을 향한 맹목적 집착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설명한다. 이는 여성의 성적특질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양성특질<sup>11)</sup>에서 기인된 것으로 여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성특질을 단념하게 되면서 고통적인 상황으로 스스로를 빠뜨리며, 이러한 사고는 여성에게 고통을 수반한 파괴적 이미지로 잔혹하게 표현된다.

크리스테바의 남근 일원론이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욕망과 관심의 집중이 남근으로부터 시작되고 오로지 남근만이 그 대상과 상징이 된다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이 태어나 사고하면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남성, 여성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남근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식의 도구로써 뿐만이 아닌 욕망의 기표로써 작용한다. 그러나 남근기에 이르러 여자아이는 자신에게 남근이 결핍된 것을 인지하며,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남근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게 된다. 이러한 집착은 여성에게 소외감과 열등 의식을 갖게 하며, 결국 여성의 사도-마조키즘 형태로 발현된다. 이와 같은 남근에의 집착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나-어머니-아버지' 세 명

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심리적인 증상이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남근에 대한 욕망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것이며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바탕으로 크리스테바는 이를 남성과 여성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의미와 구조상의 차이에 중점을 두며 설명한다. 크리스테바는 여성에게 있어서 오이디푸스 단계 즉, 상징계를 과거 프로이트나 라캉을 비롯한 다른 여러 정신분석학자들이 제안했던 것과 차이를 두며 설명하고 있는데, 그 차이란 오이디푸스를 하나의 단계로 보지 않고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1차와 2차로 나뉘어진 오이디푸스를 통해 여성의 오이디푸스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여자아이의 오이디푸스 경우 아이는 오이디푸스 1차 단계에서 사내아이와 같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쟁자로 삼지만, 2차 단계에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아버지로 바꾼다. 이것은 오이디푸스 1차시기에 가졌던 남근적 욕구의 대상인 어머니를 중요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자신이 남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즉 거세되었다는 사실과 이것의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어머니에게 적대감을 느끼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하여 오이디푸스 2차 단계에 이르게 된 여자아이는 이러한 남근적 욕구의 대상을 아버지로 바꾸게 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욕망을 품지 않고 어머니가 욕망을 품고 있는 대상, 즉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sup>12)</sup>. 다시 말해 여자아이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남근을 자신에게 주기를 갈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여자아이의 남근에 대한 갈망은 기호계<sup>13)</sup>에 이어 오이디푸스 단계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여자아이는 자신이 무언가 결핍되고 부족하며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여기게 되며 따라서 자신-주체의 존재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크리스테바는 남근 일원론이 여성 주체에게 줄 수 있는 열등의식과 결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외감을 설명한다. 이것은 결국 여성에게 사도-마조키즘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남근일원론적 사고는 아이가 성장한 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은 이러한 자

신의 부정적인 상황(남근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되며 이것은 주체인 여성 자신이 절망적인 형태인 사도-마조키즘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사내아이의 남근성과 동등성을 유지하려고 시도하게 만들고 스스로 만족감을 갖게 한다.

## 2) 애브젝션

애브젝션이란 라틴어의 abjectio에서 유래된 용어로써 공간적 간격, 분리, 제거를 의미하는 접두사 ab과 내던져 버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jectio로 구성된 단어이다.<sup>14)</sup> 애브젝션의 사전적 의미는 영락, 비천, 비열, 비굴을 뜻하며 프랑스어로는 아브젝시옹이라 읽혀지고 비열, 타락, 포기 등의 뜻을 갖고 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설명하는 애브젝션이란 한마디로 '공포가 가져다 주는 매혹적인 위력'으로써, 크리스테바가 1982년 집필한 「공포의 힘;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에서 정체성, 제도, 질서를 깨뜨리는 중간적이고 모호하고 혼성적인 것을 지칭한데서 유래된 용어이다. 이 애브젝션은 모호하고 혼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질서와 정체성, 경계, 체계를 교란시킨다.

크리스테바는 애브젝션을 억압되어온 죄, 오염, 더러움, 근친상간, 도착증, 질병에 걸린 육체 등 혐오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개념으로 설명한다<sup>15)</sup>. 그녀의 이러한 애브젝션에 관한 이론은 출산이라는 예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녀는 출산이란 내부와 외부가 치환되고 내가 타자로 도치되는 전환의 순간이며 이것은 비천함과 모성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출산의 예는 애브젝션이 의미하는 혐오스럽고 동시에 공포스러운 주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녀는 애브젝션의 논의를 '코라'라는 어머니, 즉 여성을 통해 설명한다.

코라(Chora)란 '쏟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써, 이는 타자를 포함하고 있는 신체, 즉 모체를 뜻한다. 코라는 플라톤이 최초로 '어머니'에 그 의미를 비유하며 지칭되었고, 후에 테리다는 코라를 '아버지'와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어머니 성'이 아닌 선/악, 기표/기의와 같은 한 쌍의 대립을 가능케 하며 모든 흔적을 다 받아들이는 자궁, 허공과 같은 것으로 정의하며 설명하였다<sup>16)</sup>. 크리스테바가 설명하는 코라

란 모성적 신체로써 주체와 객체 모두를 포함하는 공간, 즉 객체이자 본인에게는 주체가 되는, 객체와 주체가 공존하는 모호한 공간으로써 분리할 수도 없는 경계선상의 존재이다. 따라서 이는 아이라는 객체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자 동시에 완벽한 분리와 존재 규명을 위해 제거해야 할 존재이다. 따라서 코라에 포함된 객체인 아이는 주체인 엄마와 분리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분리는 상징계인 오이디푸스 단계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나타나게 된다. 이 때 아이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던 주체인 어머니의 신체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하고 있던 어머니를 출생할 당시에 자신과 함께 배출된 피와 배설물과 같은 오물과 동일하게 여기게 된다. 이는 유아가 자신과 하나였던 주체인 어머니를 객체로 만들어 자신과 분리하려는 것으로써 이를 위해 자신의 내부를 토약질해 냄으로써 자기 신체를 애브젝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성적 신체인 코라는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아버지에 대한 욕망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유아가 갖게 되는 곤경과 구역질나는 존재를 의미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녀는 비천함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크리스테바의 애브젝션 이론이 여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호한 경계는 주체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아이의 육체가 주체인 코라의 한 부분이었지만 주체의 확정적인 경계를 만들기 위해 기호계가 오이디푸스 단계 즉, 상징계에 천시되듯이 아이의 육체는 주체인 코라를 거부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계로의 원활한 진입이 성공한 후에 아이는 이 혐오적이고 역겨운 육체가 과거 자신과 하나였고 아직도 자신은 그것의 일부임을 부정할 수 없기에 그 코라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테바가 설명하는 애브젝션의 속성이다<sup>17)</sup>.

그녀는 이러한 애브젝션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통해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열등한 특성들의 집합이 아니라 반대로 남성적 질서를 깨고 그것에 결여된 것을 거꾸로 남성들에게 줄 수 있는 긍정적 특성들의 집합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코라란 여성의 기호학적

상징체로써 이것은 기호계를 어머니의 신체와 연결된 전복의 공간으로 부각시키는 도구이자 아버지의 이름, 법과 거세가 지배하는 상징계에 반대하여 그보다 앞선 원초적인 리비도의 복수적인 힘이 작동하는 공간으로써 여성을 의미한다.

크리스테바의 이러한 이론은 여성에 대한 페미니즘적 분석으로써 잃어버린 모성의 힘, 즉 본능적인 힘을 회복하여 서구 사회 내의 남성 우월주의를 타파하고 여성의 존재를 더 이상 남성의 감시 하의 낙약하고 결핍된 존재가 아닌, 남성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거대하고 무한한 모체로 인식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I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잔혹성 이미지

#### 1. 사도-마조키즘

패션에 있어 사도-마조키즘의 이미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페티쉬록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가 되면서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전체적인 지배는 세기말 분위기와 함께 여성에 관한 문제를 더욱 두드러지게 제기했다. 특히 여성의 사도-마조키즘 패션은 여성의 욕망, 심리적 불안정, 그리고 성적 불확정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 문화, 예술 전체에 걸쳐 드러나기 시작한다.

사도-마조키즘 이미지가 패션에 표현됨에 있어서 고무와 뽀뽀한 라텍스의 소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소재가 육체에 가하는 억압의 느낌을 통하여 신체가 그러한 견고한 껍데기에 들어감으로서 일어나는 성적 긴장감을 통해 흥분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색상에 있어서는 검정색상이 가장 애용되며 다음으로는 빨간색이 많이 사용된다. 검정색과 핏빛의 빨간색의 반복된 사용은 죽음을 상징하며 이것은 두려움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위협의 개념이다. 이러한 검정색상과 가죽의 조합은 금진적인 섹스, 반항아와 지옥사자 또는 도착적인 이미지와 결부되므로 선호되어 나타나고 있다<sup>18)</sup>.

오늘날에 이르러서 패션에서의 사도-마조키즘 이미지는 보다 실험적인 표현들로 나타나는데, 여러 색



상의 고무를 이용하거나 재질의 변화를 주기 위해 미끌어질 듯한 광택 소재, 혹은 야수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짐승의 깃털을 이용하기도 한다<sup>19)</sup>.

1) 가학적 이미지

가학적 이미지란 타인을 지배하면서 고통을 주거나 학대함을 통해 성적 쾌감을 얻는 가학적 변태성욕이다. 가학적 이미지는 18세기말의 프랑스의 후작이었던 마르키 드 사드(Marquis de Sade)에 의해 출판된 여러 책들 속에 그의 기록들을 통해서 에빙(William A. Ewing)이 명칭한 것으로써, 사드 후작은 고통으로 성적 쾌락이 강화되는 경우에 대해 그의 책 안에 기술하였다. 오늘날의 패션은 건전한 에로틱의 표현 개념에서 벗어나 성적 욕망을 유쾌하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폭력과 쇠락의 치명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고통을 가하고 즐기는 듯한 이미지는 죽음의 모습까지 포함하면서 여성의 성적 불안감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공포감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 9>에서 여성 모델은 야수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위협적 이미지인 검정색상의 가죽소재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가학적 이미지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사진 10>은 가학적 이미지를 여성의 성적 특성과 결합시켜 요부 이미지인 도미나트릭스(Dominatrix)<sup>20)</sup>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도미나트릭스 이미지는 여성 신체를 둘러싸고 있는 판넌과 욕구들이 야기시키는 여성의 분노와 좌절감의 대립을 표현한다. <사진 11>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의상과 메이크업, 장신구를 통해 인간, 여성이 아닌 기계적 존재인 사이보그의 이미지와 악마의 모습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이 사진에서



<사진 9> Alexander McQueen, 97 F/W



<사진 10> Thierry Mugler, 1996.



<사진 11> Susan Moore, 1998.

여성은 인간 이상의 사이보그 형상으로 거대한 힘과 위협을 소유한 강력한 존재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가학적 이미지는 여성의 남근 일원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여성은 자신의 남근 결핍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공격적 형태의 모습을 띄게 된다. 여성의 공격적, 가학적인 이미지는 여성 육체의 나약함과 시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동시대의 불안을 표현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욕망의 어두운 이면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피학적 이미지

피학(Masochism)이란 타인으로부터 육체적 학대를 받는데서 성적 쾌감을 얻는 피학대 음란증이다. 피학적 이미지는 1870년대 오스트리아의 소설가<sup>21)</sup>인 레오폴트 폰 자허 마조흐(Leopold von Sacher-Masoch)의 작품을 통해 에빙에 의해서 명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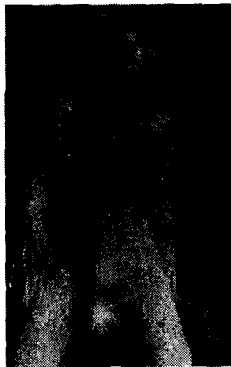
오늘날 패션에서의 피학적 이미지는 여성의 이중적인 본성, 육체에서 만들어진 걸모습이 집착에 대한 경멸, 그리고 여성의 몸에 대한 매혹과 증오, 그것이 행할 수 있는 힘 사이의 갈등을 표현한다<sup>22)</sup>. 또한 대중 문화에 노출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불안정성에 대한 공포의 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학적 이미지의 모습은 고통과 금지된 쾌락의 모순적 이미지로써 좌절 그리고 분노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의 피학적인 성향을 크리스테바는 남근 결핍에 따른 여성 스스로의 자학적인 형태로 설명한다. 그녀는 여성이 남근 결핍을 죄로 여기며 그것의 대가로 고통을 겪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가 자학적인 형태로 자신을 벌준다고 설명한다.

여성의 피학적인 이미지는 세기말의 패션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1990년대 후반의 패션 디자인과 이미지는 현대 생활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폭력성과 인간 육체의 나약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피학적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고통과 죽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남근 결핍에 따른 자학적 형태, 혹은 여성 육체의 연약성으로 인해 폭력에 처한 여성의 고통을 상처나 피의 표현으로 형상화하여 죽음에 직면한 치명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 12>의 여자모델은 황금빛의 레이스로 된 의상이 신체와 얼굴 전체를 모두 덮고 있으며 앙상하게 여윈 손가락뼈는 마치 얼굴을 할퀴듯이 움켜진 채 등장한다. 이 사진에서 여자 모델은 그녀의 죽음의 숙명을 과시하고 그것이 도발해내는 공포 속에서 항락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죽음의 이미지는 여성의 성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여성 육체에 대한 숨겨진 두려움, 그리고 결핍된 존재로서의 처벌을 나타낸다. <사진 13>에서 여성신체는 유리조각으로 전신이 찢리고 얼굴과 성기부분은 전기 충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이 사진의 여성은 고통과 억압의 대상으로 표현되었으며, 잔혹화 된 육체를 내면의 고통과 강렬한 욕망의 상징으로써 표현되고 있다.

<사진 14>는 육체적 고통으로 분노한 얼굴의 모델이 피학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 사진에서 여성은 자신의 신체의 고통에 분노함과 동시에 여성 자신의 남근결핍을 스스로 처벌하는 듯한 표정으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피학적 이미지의 여성 모델들은 쇠락, 질병, 육체적 학대에 대한 걱정을 두려워하면



<사진 12> Alexander  
McQueen, 96 F/W



<사진 13> Thierry  
Mugler, 1996.



<사진 14> Alexander  
McQueen, 96 S/S

서 동시에 이를 과시하는 비인간적인 이미지, 그리고 결핍되어진,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여성의 대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표현됨으로써 잔혹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 2. 애브젝션

크리스테마의 애브젝션 이론과 관련해서 오늘날 예술에서의 애브젝션의 표현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예술 중에서도 시각예술 부분인 미술에 있어서는 애브젝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브젝션 예술은 배설물, 생리혈, 먼지, 동물의 시체 등 비속한 재료를 사용하는 작품과 정신과 신체, 고급과 저급 등 기존 지배문화의 이분법적 구조에 타격을 가하는 표현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러한 애브젝션은 90년대 미술의 화두로 등장했다. 이것은 일종의 추의 미학으로써 탈숭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내에 만연한 편견을 전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억압받고 소외된 존재들의 복귀를 주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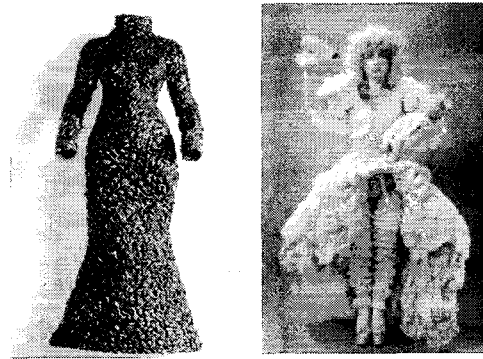
사이먼 테일러(Simon Taylor)는 시각미술에 있어서 애브젝션이라는 개념을 “먼지, 머리카락, 배설물, 죽은 동물, 생리혈, 썩은 음식과 같이 저속하고 비속한 재료를 사용한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애브젝트 미술은 무매력, 무취미, 무표현 또는 더럽혀지고 불품 없는 미술이라는 뜻과 연관되어 처음 등장하였고 1993년 휘트니 미술관에서 <애브젝트 미술: 미국 미술에서의 혐오와 욕망: Repulsion and Desire in American

Art> 전시회를 열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23)</sup>. 특히 미술 작품에서도 사회, 문화적 성향과 인간의 내면을 함께 표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 의복을 이용한 애브젝션의 미술작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조형예술이자 시각예술의 한 장르인 패션에서도 애브젝션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패션에서의 애브젝션은 미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저급하고 혐오스런 소재들을 통한 표현과 과거 이분법적 구조를 해체시키는 양상으로 사회의 구조에 존재하고 있는 판에 박힌 형식을 조소하고 전복시키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의복을 이용한 미술작품 및 패션에서의 애브젝션은 표현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비천한 이미지와 경계적 이미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비천한 이미지

혐오스럽고 역겨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애브젝션 이론은 예술 안에서 여성자체와 여성성의 새로운 재현방법으로써 신체 분비물이나 음식, 혹은 다른 사물을 통해 비천하고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써 여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애브젝션의 주된 대상이 여성인 것은 오늘날 서구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남성 우월적인 편견과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여성 권력에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페미니즘적 시각의 애브젝션은 의복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미 현재에 이르러서는 여러 디자이너들



<사진 17> 『Wall of The ascending Angels』, Jan Fabre, 1995.

<사진 19> 『Conceptual Mother』, Colette, 1981

의 컬렉션과 함께 미술작품, 그리고 사진과 같은 다른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의복을 이용하여 애브젝션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의복이라는 도구가 사회, 문화적 조류와 함께 개인의 사고를 종합하여 표현해내는 가장 훌륭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의복을 통해 여성의 비천함을 표현하는 애브젝션은 소재로써 기존의 일반적인 옷감 대신 더럽고 오염된 이물질, 징그러운 곤충이나 역겨운 느낌을 주는 날고기, 혹은 머리카락과 같은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표현한다.

<사진 15>는 버려진 쓰레기와 사물을 포장했던 폐비닐, 그리고 구겨진 신문지 등을 사용하여 제작된 의복으로써, 이는 의복이 지녀야 할 심미적 요소들을 배제시킨 채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라 여겨지는 것으로서 신체를 장식하는 의복을 제작한 것이다. 이는 여성 육체를 더럽고 오염된 것으로 치장함으로써 여성 육체 자체를 비천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의 표현은 <사진 16>과 <사진 17>의 의복을 이용한 미술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진 16>은 페미니스트 미술가인 자나 스테르박(Jana Sterbak)의 작품으로 날고기를 엮어서 만든 원피스이다. 이 원피스는 여성의 신체와 날고기를 비유하며 여성을 식육과 관련시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인 고기를 재료로 한 작품은 여성의 신체를 식육을 충족시키는 음식물과 유사한 존재로 보며 여성을 단지 남성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성적 소모품으로써 표현하고 있다. 또한 옷감 대



<사진 15> John Galliano, 01 S/S

<사진 16> 『Vanitas』, Jana Sterbak, 1987.

신 죽은 살점을 사용한 것을 일반적으로 패션이 자연적인 신체를 숨기고 장식해오던 역할을 전복시키며 신체를 있는 그대로의 비천한 존재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 17>에서는 정그럽고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벌레를 엮어서 여성의 드레스를 장식한 작품으로써 여성의 비천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이라는 신체를 벌레와 동일시함으로써 벌레가 주는 혐오스러움을 여성육체와 함께 엮어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술작품에서의 의복을 통한 애브젝션의 표현은 패션에서의 애브젝션의 표현과 함께 오늘날의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위치를 새롭게 재정립 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 경계의 이미지

애브젝션 이론에 있어서 경계의 모호성은 가장 근본적인 공포의 원인이다. 애브젝션이 되는 것은 부정적일거나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 동일성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며 지정된 한계나 장소, 혹은 규칙들을 규정짓지 않고 모호하게 만드는 혼란물들이다. 자체의 존재가치와 위치의 불분명함은 자체를 위협하는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공포는 타자를 파괴시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계의 모호함은 정체성과 질서, 경계, 그리고 이성애/동성애, 인간/비인간, 예술의 고/저, 남성/여성 등과 같은 이분법적 개념을 혼란시킨다.

모호한 경계의 이미지는 패션에 있어서 주로 신체와 환경, 오물, 그리고 성에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경계의 모호성이 주는 공포에 있어서 '코라'를 기반으로 설명한 것과 같이, 어머니라는 여성 주체와 관련하여 경계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20세기 후반 여성이 공적인 영역에서 권력과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여성의 위치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가고, 이에 따라 여성, 남성 모두는 여성 육체의 힘에 대해 모호함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모호성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은 여성을 애브젝트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사진 18>의 여성은 신체를 신체가 위치하고 있는 폐허의 공간과 하나로 묶어 버려지고 썩은 하나의 물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은 공간과 분리되어진

독립된 개체로 보여지기도 하며 동시에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로써 모호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여성의 경계적 이미지는 성의 표현에 있어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사진 19>는 순결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터벨트를 착용한 여성의 천박한 이미지와 혼재시켜 여성, 어머니의 이미지를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사진 20>은 비버리 지메스(Beverly Semmes)의 작품으로, 의복의 끝 부분을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의복으로 인지되는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며 동시에 여성 존재의 범주에 관해서도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의복을 통한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여성 의복이라는 도구를 통해 여성 주체를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코라'와 같은, 모든 객체를 포함하고 발생시키는 거대한 존재로써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사진 18> Alexander McQueen, 01 S/S



<사진 20> 'Red Dress', Beverly Semmes, 1992

애브젝션은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주체정립

을 향한 욕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며 모호함이 주는 공포감은 애브젝션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여성에 관한 잔혹성 이론을 현대패션과 접목시켜 그 양상을 분석, 고찰하였다.

잔혹성이란 극도로 참혹하고 끔찍스러운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조건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잔혹성의 표현은 신체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첫째, 신체란 파괴가 용이한 존재이며 이러한 신체 파괴는 신체 범위의 확장을 의미하며, 물리적 힘에 의한 신체 파괴와 미적 범주를 확장시키기 위해 행하는 새로운 신체 창조를 위한 파괴가 있다. 둘째, 신체의 개념과 경계를 전복시키는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신체 침범과 사회적 인식과 규범으로부터 이탈됨으로써 야기된 신체 개념의 변화에 따른 신체 변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에서 배출되는 더럽고 혐오스런 배설물과 자연적인 것을 변형시켜 양가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더럽고 오염된 것으로 여겨지는 음식물을 통해 오늘날 잔혹성의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잔혹성에 관한 이론들 중에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여성에 관한 잔혹성 이론을 고찰하였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여성의 잔혹하고 혐오스러운 행동의 원인과 표현양상을 설명하였다. 그녀의 잔혹성에 관한 이론은 사도-마조키즘과 애브젝션으로 나누어서 요약된다.

첫째로 크리스테바는 여성의 심리에 자리잡고 있는 양성특질로 인한 남근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남근 일원론적 사고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한다. 여성은 남근기에 이르러 자신이 남근을 소유하지 못한 결핍된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남근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과 소유를 꿈꾸게 된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여성은 스스로 자신이 결핍되고 열등한 존재

라고 생각하게 되며, 이러한 사고는 여성의 자책감과 더불어 사도-마조키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이러한 사도-마조키즘을 통해 남근 결핍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 동등성을 획득했다고 여기며 만족하게 된다.

크리스테바의 잔혹성에 관한 두 번째 주제는 애브젝션이다. 그녀는 자신과 하나였던 어머니를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써 치부해 버림으로써 객체인 아이가 주체인 어머니와의 경계의 모호함으로 인한 공포심을 떨쳐버리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결국 자신은 어머니와 하나였으며 분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음으로써 아이는 그러한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을 자신도 모르게 욕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애브젝션 이론의 중심 대상인 어머니라는 여성 신체를 통해 여성이란 결핍과 소외의 대상이 아닌 모든 객체를 포함하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존재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잔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배경으로 패션에 표현된 잔혹성 이미지를 사도-마조키즘과 애브젝션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첫째로 여성이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남근의 결핍과 상실을 자책하므로 나타나는 사도-마조키즘적 표현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패션에 있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나타났는데 사도-마조키즘 패션의 주된 표현 요소였던 검정색상과 가죽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금속과 다양한 광택소재를 통해 사이버그의 모습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또한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 그리고 액세서리에서도 고통과 위협의 이미지, 더 나아가 죽음의 모습까지 표현하고 있다.

둘째로, 애브젝션은 비친한 이미지로써 표현하기 위해 여성의 의복을 버려지고 더러운 쓰레기로 장식하고 여성을 식욕을 충족시키는 음식물과 같이 남성들의 성욕 해소의 도구로써 표현하기 위해 음식물로 의복을 제작하였으며, 머리카락과 같이 신체의 일부분이었던 것을 분리하여 그것이 주는 불쾌감을 여성복에 이용함으로써 혐오스럽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구분이 불가능한 모호한 경계선이 주는 공포를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코라'와 연관지어 경계선상의 존재로서 여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인간과 비인간, 환경과 사물, 그리고 성의 경계선 위에 존재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현대사회의 잔혹성에 관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이론은 여성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더럽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서구 사회 내의 열등하고 소외된 존재로써 남성의 지배하에 놓여 있던 여성을, 소외와 결핍의 상징이 아닌 공급과 풍요의 주체로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모체로서 재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잔혹한 이미지는 인간의 심리 표현에 있어 의복이라는 도구에 의해서 표현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이분법적 사고로 고정되었던 미적 가치와 의복간의 규정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잔혹성이란 또 다른 미의 영역으로써 패션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통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가시화한다.

## 참고문헌

- 1) 삼성 출판사 (1981). 새 우리말 큰 사전. 서울: 삼성 출판사. p. 2817.
- 2) 김유경 (2002). 무대의상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이미지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
- 3) 김소영 (2002).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이상적 신체 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5.
- 4) 김원방 (1998). 잔혹극 속의 현대미술. 서울: 예경. p. 24.
- 5) David Wood T.G. (1999). *Body probe*, New York: Creation Books. p. 44.
- 6) 앞의 책. p. 151.
- 7) Julia Kristeva, 서민원 역 (1980). 공포의 권력. 서울: 동문선. p. 92.
- 8) 브라만교는 먹다 남은 음식물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음식물이 그 자체와 그 밖의 다른 것들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혼합하거나 중복하는 양가성 때문에 남은 음식물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자연물이란 어떤 것, 아니면 특히 누군가의 잉여물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스스로의 불충족성 때문에 다른 것까지 더럽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잔여물이 주는 더러움은 동시에 재생을 의미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존재와 비존재, 죽음과 활기. 이 모든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9) 프랑스의 탈구조주의와 기호학을 원용한 제 2세대 페미니즘으로써, 그들은 성별 정체성을 문화적 구조로 보고 여성에 대한 기존 모든 개념을 해체하고자하며 작업의 초점을 남녀간의 차이가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별적으로 정의되는 '과정'으로 이동시켰다.
- 10) 멜라니 클라인은 모성적 계보인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신체의 대상-관계분석으로 전이된 기호학적 설명으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쾌락과 욕망은 공격성과 죽음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 11)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인간의 심리에는 본래 누구나 양성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양성특질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설명하는 여성의 양성특질이란 여성의 현실적 존재(육체적 성)인 여성과 상징적 실체(욕망하는 정신적 성)인 남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양성특질이라는 말보다 하나의 몸체 안에 남녀 양성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앤드로진(Androgyne)이라고 설명하는게 더 적합하다. 이와 같은 여성의 양성소질은 자신의 실제적인 성인 여성을 인정하여 남성의 상대방이 되면서 양성소질을 포기한 듯 보이나, 결국 아이라는 상징적 남근을 얻음으로 자신의 양성소질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
- 12) Julia Kristeva, 앞의 책, p. 219.
- 13)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설명하는 기호계란 오이디푸스가 발생하는 남근기의 전 단계로, 프로이트가 설명했던 구순기, 항문기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구순, 항문기와 남근기 사이에 위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중요 특성은 아버지의 이름, 법과 거세가 지배하는 남근기에 반하여, 그에 선행되는 원초적인 리비도의 복수적인 힘이 작동하는 기호계를 어머니의 신체와 연결된 전복의 공간으로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프로이트가 성의 우월성이 확정된다고 설명한 남근기의 전 단계에 이미 존재하는 기호계에서 여성의 위치와 존재성을 재정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14) 차은진 (2002). 애브젝트(abjection)로 표현된 의상. 한국복식학회, p. 21.
- 15) 자료출처: [http://www.eze21.co.kr/mentality\\_\\_until/book54.asp](http://www.eze21.co.kr/mentality__until/book54.asp).
- 16) 김원방. 앞의 책, p. 378.
- 17) 차은진. 앞의 책, p. 22.
- 18) 이의정 (1998). 패션에 나타난 페티시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 118.
- 19) Rebecca Arnold. 앞의 책, p. 79.
- 20) 도미나트릭스(Dominatrix): 사도-마조키스틱 섹스에 있어서 물리적, 정신적으로 성 파트너를 지배하거나 학대하는 역할의 여성.
- 21) Leopold von Sacher-Masoch (1971). *Venus in Furs*. London. p. 228.
- 22) Rebecca Arnold. 앞의 책, p. 81.
- 23) 자료출처: <http://www.leeisart.com/nonmoon4.htm>